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9호 [루계 제23426호] 주제100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로씨야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헌물은 없었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에게 헌물을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9호 [루계 제23426호] 주제100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9일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은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의 공업회사장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운 동자, 기술자들의 역할적성과 평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에 대한 현지지도과정에 2월제 강종합기업소의 기술개선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경제규모에 맞도록 당의 경제정책 판찰에서 선봉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기계공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새로운 제품들의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경계

신심이 뜨겁게 용솟음친 때는 없었다고 하시면서 김정일동지의 강성 대국건설념을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대 하여 호소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이란문 『이란 뉴스』 10일 부는 우의 소식과 함께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제련소, 압록강 다이아공장, 강제 브로드종합공장, 강고려 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으며 자강도에 출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판람하신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강계의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처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경계

프락포르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이 CNC화를 실현하여 생산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함께 약공장을 현지지도하였으며, 결사판결의 투사들이라고 하면서 공장의 판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시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강계고 약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동행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신화파제스코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조조와 백두산체스포조선친선협회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이 소식과 함께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제련소와 압록강 다이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또한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자강도에 출단 예술인들의 공연을 판람하신 소식도 보도하였다.

이북의 국가기구체계는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독특한 체계, 완성된 선군정치체계이다.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제 27 차 4 월 의 봄 친선 예술 축전 페막식 진행

어버이수령님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만민의 한마음 영원하리

제 13 차 김 일 성 화 축 전 장 에 서

태양의 꽃축전과 더불어 뜻깊은 4월

조선 김 일 성 화 김 정 일 화 위 원 회 일 군 들 과

나는 이야기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김일성화는 나라의 국보이며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

지금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즐음하여 제 13 차 김일성화축전이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관심과 기대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축전장에서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부위

원장 김창도동무와 국장들이

배민옥, 하진국, 부국장 김승

길동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

었다.

기자: 주체 88 (1999) 년의 태양절을 맞으며 제 1 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불멸의 꽃축전의 발전세도에 대하여 알고 싶다.

김창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13 차례의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되었는데 보다 삶이

불멸의 꽃축전은 시대와 역사 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어버이 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는 우리 인민과 전세계 진보적인 인류의 가장 뜨거운 흠모와

충정의 마음이 그대로 비친

위인정송의 꽃바다이다.

제 1 차 김일성화축전이 진행될 당시 1 1 개 단위에서 2 0 0 0

여상의 불멸의 꽃을 출품하고

참관인원수는 2 6 만여명에 달

하였다. 그때로부터 해마다 축

전에 출품되는 김일성화가 늘어나 이번에는 근 2 만상의 불멸

의 꽃이 전시되었다.

태양의 꽃들이

높아가는 김일성화 재배열이

는 무역성 전시

대 앞에서는 축전개막날부터 많

은 사람들은 흥성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김일성화를 잘 키워 대안순술 길이 전하며 김일성화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만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날 축전장을 참관하였던 주

조 무판단의 한 성원이 이 절

대 앞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멀지 않아 귀국하게 되는 그는 자기도 꽃을 사랑하는데 축전

장을 돌아보면서 김일성화야말로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꽃중의

왕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

고았다.

제 13 차

김일성화축전장

나쁜 결정을 금

치 못한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은 감상록에

이런 글들을 남겼다.

세상에 한미을 한듯으로 피

워내는 인민의 꽃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이다.

나는 세상에서 김일성화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이

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체

이번 축전에서도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매혹의 감정은 끝없이 물결치

고았다.

제 27 차

김일성화축전장

나쁜 결정을 금

치 못한 외국의

벗들과 해외동포들은 감상록에

이런 글들을 남겼다.

세상에 한미을 한듯으로 피

워내는 인민의 꽃은 불멸의 꽃

김일성화이다.

나는 세상에서 김일성화가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이

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체

이번 축전에서도 태양의 꽃

김일성화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매혹의 감정은 끝없이 물결치

고았다.

제 27 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

친선련환 모임 진행

【평양 4월 18일 발 조선중

양통신】 제 27 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의 친선

연환모임이 1 8 일 평양체육관

에서 진행되었다.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안

동훈문화상, 축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들, 판계부문 일군들

과 여려 나라 예술인들, 해외

동포 예술인들이 모임에 참가

하였다.

참가자들은 진보적인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맞이하고 축전을 통하여

친선련환 모임을

진행하였다.

제 13 차 김일성화축전에 참

가하였다.

표류된 우리 주민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당의 천인 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 단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진상공개장

최근 남조선 괴뢰당은 기상 악화로 조선서 해해 상에서 표류 하던 우리 배와 주민들을 강제 탐지하여 50여 일동안이나 부당하게 억류하고 악랄한 「귀순」 공작에 매달리었으며 일부는 끝내 송환하지 않는 반인륜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공민들의 인권에 대한 용납 할 수 없는 엄중한 침해이며 또 하나의 극악한 중대도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괴뢰당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가장 횡포무도한 혁적 행위로, 특대형 반인권적 범죄로 종厲히 규탄 단죄하면서 그 진상을 내외에 공개한다.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강제 탐지

지난 2월 5일 오전 8시경 우리 주민 31명은 조개잡이를 위해 5(급) (27HP) 고기배를 타고 황해남도 강릉군 동포리 포구를 출발하였다.

1시간 정도 지나 절은 안개가 물으로부터 바다쪽으로 밀려들면서 우리 배는 한치 앞도 봄간하게 어려운 뜻밖의 정황에 처하였다.

배는 부두를 9시 30분경 우리 수역인 강릉군 부포암바다의 닭섬과 대수암도부근의 진초동 주변에 맞을 내리였다.

오전 1시경부터 떠나는 큰 얼음장들이 배에 부딪칠수 있는 위협이 조성되어 배에 탔던 선원들과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당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우리측은 2월 14일 당시금 남쪽에 통지문을 보내어 열흘이 되어오도록 우리 주민들과 배를 둘러보내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대체 유감을 표시하고 억류된 대부분이 너성들로서 어떤 자식들을 비롯한 가족, 친척들이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의 송환을 더 이상 지체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주민들과 배가 기상판례로 표류하였으며 3·15명절이 돌아갈 것을 회망한데 대해서는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당국자들은 인정하였으며 남조선 언론들이 그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

2월 7일 괴뢰당 국방 차주는 『최종 확인 결과 3·15명절이 송환을 원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괴뢰당은 그 무슨 『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을 무어 가지고 『조사』니 뛰어나서자 괴뢰군들은 풍을 돌려보내지 않고 무려 50여 일 동안에 여류하였다.

그리고 억류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렬한 『귀순』 공작에 매달렸다.

괴뢰 정보 보원, 괴뢰 통일부, 군부,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단』은 우리 주민들을 외부와 격폐시키고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악랄하게 비방 중상하면서 어리석게도 그들의 물을 훔쳐들어 봉래 하였으며 한선침물 사건과 연평도 사건까지 진상을 외곡하여 우리를 훨씬으로 내렸다.

실로 흥악한 해적무리를 무색케 하는 백주의 날강도적인 탐지 행위였다.

당시 주변 수역에는 괴뢰해군의 정부 무려 10여 척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

원래 우리 주민들은 이 수역이 매우 위험한 곳이므로 항해하면서 계속 우회를 하면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다시 맞을 울리고 불리한 정황에서 벗어나려고 힘쓰고 노력하였다.

우리 배가 공화국 수역에 있었다는 것은 괴뢰군들이 배와 주민들을 힘으로 탐지하는 남쪽으로 한창동안 끌고 가 저를 학살에 옮겨갈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괴뢰군들은 이방곳없이 배에 무장부 터울려 총탁과 폰봉으로 조サー의 출입문과 청문장을 들부시고 우리 주민들을 사정없이 구타하였으며 그로 하여 일부는 심한 타박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고

비로 이때 남조선 괴뢰해군은 고속 단정 3척이 갑자기 나타나 고동을 울리며 배를 세우라고 고아했다.

우리 배가 그에 응하지 않자 괴뢰당은 1척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나고 나머지 2척은 배의 뒷방을 사정하지 않았다.</p

